

지난해 광주·전남 노인학대 541건...90% 이상 가정서 발생

배우자에 의한 가해 가장 많아...신체·정서적 학대 심화 은둔형 외톨이 성인 자녀 폭언 위협도 갈수록 증가 추세 광주·전남 재발 건수, 전국 평균보다 높은 16%·17%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는 1년 넘게 남편으로부터 성적 강요와 폭언에 시달려 오다 최근 경찰에 남편을 신고했다. 의처증을 앓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지속적인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5월까지 총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동안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대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95.1%를 차지했으며, 공공장소 3건(1.5%), 생활 시설·병원 각 2건(1.0%) 등으로 드러났다. 전남 역시 가정 내 학대가 306건으로 90.8%를 차지했으며, 공공장소 11건(3.3%), 생활시설 10건(3.0%), 병원 3건(0.9%)이 뒤를 이었다.

특히 광주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2021년 125건, 2022년 114건, 2023년 158건, 2024년 151건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정서적 학대가 212건(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 179건(39.1%), 성적 학대 14건(3.1%), 경제적 학대 12건(2.6%), 방임 31건(6.8%), 자기방임 9건(2.0%), 유기 1건(0.2%) 등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는 2021년 242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감소했지만, 정서적 학대는 2021년 205건에서 2024년 21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이 제정된 지 올해로 20년차를 맞았지만, 광주·전남에서 노인학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전통적인 배우자 간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 성인 자녀에 의한 폭언과 위협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고 100명중 16명은 또다시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의존을 겪는 가해자로부터의 학대, 시설 내 방임성 학대 등도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국적으로도 노인학대는 증가 추세다. 노인학대 의심 신고 및 학대판정 건수는 2020년 1만 6973건에서 2024년 2만2746건으로 늘었고, 학대 판정도 같은 기간 6259건에서 7167건으로 증가했다.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노인 학대 특성상 학대 행위가 재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노인학대 재발률 건수는 812건으로 전체 학대사례 7167건 중 11.3%에 해당하며, 광주와 전남은 평균을 넘어 각각 16.2%, 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숙 전남서부노인보호기관장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도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개입을 거부하면서 초기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쉼터로 가더라도 경제권이 대부분 가해자 쪽에 있어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면서 재학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학대사례 발생 시 가해자로부터의 조속한 분리와 지속적인 상담 등 장기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1주년 14일 광주시 북구 화암동 충민사 일원에서 열린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1주년 기념행사'에서 시민들이 습지까지 이어진 오솔길을 걸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밀리환초 강제동원 640명 명단 확인...635명 전남 출신

'광주천인소송' 원고 23명도 포함

태평양 전쟁 당시 태평양 남양군도 밀리환초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피해자 대부분이 전남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셜 제도 쿼탈레인환초와 팜 등지에 강제동원된 조선인도 670여명에 달하며, 이 중 대다수가 전남 사람이라는 증거도 발굴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13일 오전 광주 시의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竹内康人)씨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본 도쿄 소재 국립공문서관에서 새롭게 발굴한 남태평양 마셜제도 강제동원 명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밀리환초 강제동원 640명 명단 중

99%인 635명이 전남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밀리환초 강제동원 사건은 1945년 태평양 전쟁 말기 마셜 제도에서 동남쪽 끝에 있는 밀리환초(Mili Atoll)에 강제동원됐던 조선인들이 일본군의 잔혹행위에 집단으로 저항했다가 학살당한 사건이다. 일본군이 조선인을 살해한 뒤 인육을 '고래고기'라고 속여 다른 조선인들에게 먹였고, 이에 분노한 조선인들이 저항하다 일본군에게 학살당했다. 앞서 다케우치씨는 지난해 6월 밀리환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218명의 희생자 명단을 공개, 그중 214명이 전남에서 끌려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상세한 명단이 공개된 것이다. 이번 명단은 일본 정부가 작성한 '피징용 사망자

연명부', '해군 군속 신상조사표'를 토대로 했다. 자료에는 피해자 대부분이 담양, 나주, 장흥, 순천 등 전남 각지에서 차출됐다고 쓰였으며 창씨개명된 이름, 주소, 연락처, 동원된 날짜, 사망일, 동원 당시 닷던 선적, 일을 하고 받지 못한 미지급금이 낱말이 적혀있었다.

명단 중에는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1992년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일명 '광주천인소송' 원고 23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국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광복 80주년이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자료를 은폐한 실태를 보여준다. 지금까지도 제대로된 진상규명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전남도, 함평서 '정신건강화합한마당' 행사

22개 시·군 가족 등 700여명 참석

정신건강 취약자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3일 함평문화체육회관에 '2025년 전남도 정신건강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 22개 시·군 정신장애인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10명)과 참가자들을 위한 문화공연 및 체육대회 등으로 진행됐고 전남지역 28개 기관·단체의 정신건강서비스 프로그램 홍보 전시, 포토존·카페테리아 등도 설치돼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신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오늘 오전까지 20~60mm 비

광주·전남에 16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그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 영향을 받아 16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그칠 것"이라고 예보했다.

16일까지 광주·전남에는 20~60mm의 비가 더 내

리며, 전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당분간 평년(최저 16~19도, 최고 25~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나타나며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부 내

륙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기상청은 15일 폭염영향예보를 발표하고 16일 순천과 구례의 폭염 위험수준이 '관심' 단계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폭염영향예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며, '관심' 단계는 일상적인 활동이 조금 불편하고 취약한 대상에게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